

제안

이찬규*

두 번째 제안이었다. 신안의 지도라는 섬에는 한옥이 비어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며칠 지내라는 제안이었다. 직장에 이래저래 일이 많아 이번에도 망설였다. 김형에게 전화했다. “갔다 올까요? 중요한 세미나도 있는데?” “다녀오세요. 알아서 건사할게요.”

버스로 다섯 시간이 걸렸다. 목포를 지나 다리를 건너가니 땅이 낮아졌다. 차 안에서도 임야로 펼쳐지는 황갈색 흙의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한옥에 당도하니 염전 너머로 먼바다가 보였다. 망망했다. 지인이 오늘 잡힌 것이라며 홍어를 조금 가져왔다. 다른 쪽 손에는 황갈색 즙이 들어 있는 1.5리터 생수통이 들려 있었다. 무엇이냐고 물으니, 고구마즙이라고 했다. 마시니, 술이었다. 술이냐고 물었더니, 술이라고 했다. 취사할 것이 없으니, 고구마즙(술)과 홍어가 저녁이었다. 홍어가 삭지 않아 생생했다. 그 생생함을 고구마즙이 순하게 다독여 주었다. 겨울밤이 길었다. 지인에게 신안에는 왜 그리 오래 머무시냐고 물었다. “그냥…. 잊어먹게 되고, 잊히게 되니까요.” 바닷가에 세워진 오래된 한옥이 고요했다. 절벽 같은 고요함이 한없이 깊어져서, 우리도 검은 바다 위로 사라지는 눈송이들 같았다.

누군가 밖에서 헛기침을 했다. 대문은 없으니 마루의 미닫이 창호를 열었다. 낮선 사내가 어깨에 묻은 눈을 털며 말을 건넸다. “집안의 추모제가

* 숭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끝났는데, 오셔서 음식을 나누시다.” 마을의 고살길을 따라갔다. 부인의 추모일을 맞은 노인께 처음 뵙겠다고 인사를 드렸다. 자식들이 3남 1녀라고 소개를 하셨다. 어딘지 죄다 닳아 있는 그들에게도 인사를 드렸다.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다. 직장에 일도 많건만, 어찌자고 영정이 있는 방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남해에서 직접 잡았다는 민어 고기를 나눠 먹고 있는 것일까. 장남이 물었다. “고구마술 한잔 하시지요?” 걸걸한 목소리에 남도의 다정이 느껴졌다. 나는 그 다정에 망설였다. 마루에 계시던 어르신이 새 주전자를 가져오라고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고구마즙(술)이 주전자에 담기는 소리가 투덕투덕 들려왔다. 소리가 길어지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주전자가 큰 모양이었다. 휴대폰에는 메타버스 인문학 세미나가 잘 끝났다는 문자가 와 있었다.